삶의 좌우명

삶의 좌우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
주체107(2018)년

머 리 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나온지도 어언 수십년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절세위인의 회고록은 심오한 사상과 풍부한 내용, 주옥같은 문장, 비상한 감화력으로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속에서 계속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회고록은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혁명의 원리와 인생의 참된 진리를 깨우쳐주고 삶과 투쟁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좌우명을 가르쳐주는 귀중한 교과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고록에서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면 천하를 얻고 백번 승리하며 인민을 멀리하고 그의 버림을 받게 되면 백번 패한다는 진리, 생과 투쟁의 교훈을 후세에 남기게 되기를 바란다고 서술하시였다.

본사 편집부는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진보적인류의 열망을 담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들어있는 명언들을 수록한 명언집 《삶의 좌우명》을 발행한다.

차 례

1. 조국과 혁명 ··············· 1
2. 당과 대중 ··············· 19
3. 사상과 리론 ··············· 23
4. 인민과 충복 ··············· 33
5. 인간과 생활 ··············· 38
6. 군사와 지휘관 ··············· 46
7. 신념과 의리 ··············· 49
8. 믿음과 동지애 ··············· 63
9. 전통과 계승 ··············· 73

1. 조국과 혁명

《나라가 망하면 산천도 사람도 결코 편안할수가 없다. 망한 나라의 지붕밑에서는 나라를 판 값으로 호의호식하는 매국노들도 발편잠을 자지 못하는 법이다. 사람은 설사 살아있어도 상가집 개만 못하고 산천은 설사 지경이 남아있어도 제모습을 보존하기 어렵다.

이런 리치를 먼저 깨닫는 사람을 선각자라고 하며 와신상담하면서 나라의 비운을 가시려고 애쓰는 사람을 애국자라고 하며 제 한몸을 불태워 진리를 밝히고 만민을 불러일으켜 불의의 세상을 뒤집어엎는 사람을 혁명가라고 한다.》

《아버지는 그때 고향을 떠나기에 앞서 <남산의 푸른 소나무>라는 시를 남기였다. 그것은 몸이 찢겨 가루가 되여도 대를 이어가며 굴함없이 싸워 삼천리금수강산에 기어이 독립의 새봄을 가져오려는 아버지의 굳은 맹세였다.》

《력사는 강대국들이 작은 나라를 동정하고 약한 나라 인민들에게 자유와 독립을 선사한 전례를 알지 못한다. 한 민족의 자주권은 오직 그 민족자체의 주체적인 노력과 불굴의 투쟁에 의해서만 보존하고 쟁취할수 있다. 이것은 여러 세기와 세대를 거쳐 이미 력사에 의해 검증된 진리이다.》

《3.1인민봉기는 인민대중이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하자면 반드시 혁명적당의 령도밑에 옳바른 전략전술을 가지고 투쟁을 조직적으로 벌려나가야 하며 사대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자체의 혁명력량을 튼튼히 마련해야 한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기였다.》

《사람이 한생을 살아가느라면 별의별 설음을 다 겪기마련이다. 그러나 그 모든 설음가운데서도 가장 큰 설음은 나라를 잃은 슬픔이며 망국노가 되여 조국을 떠나는 슬픔이다.》

《혁명은 특수한 몇몇 사람들만 하는것이

아니다. 의식화를 잘하고 영향만 잘 주면 누구든지 세계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혁명투쟁에서 놀라운 위훈을 발휘할수 있다.》

《조국을 위해 울어도 보고 웃어도 보고 피도 흘리면서 온 넋과 육신을 다 바친 사람들만이 조국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심장으로 깨달을수 있다.》

《진실로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구의 그 어느곳에서 살든지 선조의 무덤이 있고 자기의 태가 묻힌 낯익은 강산으로 찾아오기마련이며 설사 다른 지점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어느때인가는 이렇게 만나 정을 나누게 되는 법이다.》

《내가 새 사조의 진수를 빨리 깨달을수 있었다면 그것은 나라잃은 민족의 아들로 태여난 슬픔과 분노때문이다. 우리 민족이 당하는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은 나를 일찌기 철들게 하였다. 나는 수난당하는 조국과 겨레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감수하였다. 그것이 나에게 커

다란 민족적의무감을 짊어놓았다.》

《단일민족국가인 우리 나라에 있어서 진정한 민족주의가 곧 애국주의로 된다는것은 움직일수 없는 하나의 원리이다. 이런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나는 애국적인 진정한 민족주의자들과의 단결과 협력을 언제나 중시하였고 그것을 우리 혁명승리의 확고한 담보로 보았다.》

《혁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옥은 하나의 투쟁무대라고 할수 있다. 감옥을 단순히 죄인들을 가두어두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피동에 빠져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러나 감옥을 세계의 한 부분이라고 여기게 되면 그 비좁은 공간속에서도 혁명을 위해 유익한 일을 할수 있는것이다.》

《민족의 운명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귀중히 여기는 모든 애국력량의 단합과 거족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구원될수 있다.》

《정치는 그릇이 커야 하며 정치가는 도량

이 넓어야 한다. 정치가 그릇이 크지 못하면 대중을 다 담지 못하며 정치가가 도량이 넓지 못하면 대중이 그 정치가를 외면해버린다.》

《남들이 만들어놓은 형타에 억지로 틀어맞추어 혁명의 성격을 규정해버리면 교조를 범한다. 형타가 선차적인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이 선차이다. 설사 고전에 없는 정식화이고 남들에게 없는 규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나라의 실정에 부합되는 과학적인 규정이라면 공산주의자들은 그것을 서슴없이 선택할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령하 40℃를 오르내리는 만주의 혹한속에서 15년동안이나 발톱까지 무장한 강적과 싸워이길수 있었던것은 인민이라는 강력한 성새가 있고 인민대중이라는 무한대의 창해가 있었기때문이였다.》

《원래 혁명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의 신념과 목적에 따라 자주적으로 진행하게 되는것이다. 이러한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는

혁명의 지도사상을 마련하는 사업도 제 힘으로 하였고 우리 당의 시원인 <ㄹ.ㄷ>도 독자적으로 조직하게 되였다.》

《인생을 하나의 도락이라고 보게 되면 혁명을 못하고 부를 누리는것으로 그치고말며 도락을 못 누려도 사람답게 사는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게 되면 부자도 혁명에 참가하게 되는것이다.》

《혁명가의 일생은 대중속에 들어가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수 있고 혁명의 실패는 인민대중의 힘을 믿지 않고 인민대중속에 들어가지 않는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할수 있다.》

《인민을 더 잘살게 하고 우리 인민에게 더 큰 복리를 마련해주며 인민의 지지성원속에서 개척한 혁명을 완성하는것이 그들에게 바치는 최대의 보상이며 선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인민에게 이런 보상을 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공산주의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말할수 없을것이다.》

《그때 로동자들이 우리에게 한 말을 듣고 나는 세가지 측면에서 큰 충격을 받았는바 하나는 혁명가가 민심을 잘 알려면 항상 대중속에 있어야 한다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장투쟁을 시작하려면 무엇보다도 대중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조직화하는 사업을 더 다그쳐야 하겠다는것이였으며 또 다른 하나의 충격은 그 어떤 형태의 투쟁도 대중이 그 의의를 충분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동원되기 전에는 성과를 거둘수 없다는것이였다.》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하여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친 사람들만이 조국이 얼마나 귀중하고 조국에로 다시 가는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시련에 찬길인가를 진정 뼈에 사무치게 느낀다고 말할수 있다.》

《번지르르한 혁명적언사와 초당적인 구호의 뒤에서 좌경은 항상 대중을 우롱하고 억누르고 기만하며 공명과 출세를 꿈꾼다. 그 공명과 출세를 위하여 자기를 최전선에서 돌진하는 땅크나 장갑차로 묘사하는것이 좌경이다. 변장한

반혁명이 좌경의 모습으로 둔갑하는것은 그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경각성을 높여 자기 진지에 좌경이 발붙일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우경이 공개적인 반혁명이라면 좌경은 은페된 반혁명이고 우경이 암이라면 좌경도 그에 못지 않은 독버섯이다. 우경과 좌경은 혁명이라는 하나의 거목우에 기생하면서도 서로 등을 돌려대고 동상이몽하는듯 하지만 실은 하나의 맥락으로 깊이 련결되여있다. 개인이 좌경을 하면 집단을 해칠수 있고 집권당이 좌경을 하면 인민을 잃어 혁명을 망칠수 있다는 진리를 명심하지 않는다면 사회주의도 고수할수 없다.》

《혁명은 자기가 세운 전략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환경과 조건에 맞게 전술을 부단히 갱신해야 한다. 이런 갱신이 없다면 혁명은 침체와 답보를 면치 못하게 된다.》

《사랑에 국경이 없고 과학에 국경이 없는

것처럼 혁명에도 국경이 없다.》

《진정한 공산주의자도 참다운 애국자이며 또 진정한 민족주의자도 참다운 애국자라고 보는것은 나의 변함없는 신조이다.》

《온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써만 조국의 운명을 구원할수 있다는것이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력사적교훈이다.》

《우리는 남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살리기 위하여 총을 잡은 사람들이였다. 조국을 살리고 겨레를 살리는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투쟁목적이였고 사명이였다. 우리의 총검은 오로지 우리 조국을 강점하고 우리 민족을 압살하며 우리 인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원쑤들을 징벌하는데만 바쳐졌다.》

《항일투사들은 력사에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력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투쟁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산에서 싸울 때 후대들이 우리를 기억해도 좋고 기억 안해도 좋다는 립장을 가지고 만

난을 이겨냈다. 만일 우리가 력사에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총을 잡은 사람들이였더라면 우리는 오늘 후대들이 항일혁명력사라고 부르는 위대한 력사를 창조하지 못하였을것이다.》

《백두산은 우리 나라 조종의 산으로서 조선의 상징이며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자랑하는 민족사의 발상지이다.》

《청소한 우리 공화국이 지구상의 <최강국>과 맞서싸워 그를 타승할수 있은것은 적측이 거의 순수한 군사력만 동원한 반면에 우리측에서는 전민이 동원되고 군민이 단결하여 싸웠기때문이다.》

《사람들이 처음부터 혁명가로 태여나는것은 아니며 생활과 투쟁속에서 투사로, 혁명가로 자라게 되는것이다. 사람들이 혁명가로 성장하는 과정은 서로 다르지만 사상이 견실하고 애국애족의 일념으로 불타는 사람은 옳은 지도를 받게 되면 누구나 다 혁명가로 된다는것은 혁명의 진리이며 력사의 교훈이다.》

《민족의 운명이 생사기로에 놓여있던 암담한시기 항일의 용사들이 조국땅에서 울린 총소리는 멍들었던 겨레의 넋을 되 살리고 항일혁명의 앞길에 승리의 서광이 비끼게 하였다.》

《조국통일은 나의 일생을 관통하고있는 변함없는 의지이고 신념이다. 반만년의 력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은 마땅히 하나의 통일국가에서 살아가야 하며 또 살아갈수 있다는것이 민족통일과 관련된 우리의 립장이고 관점이다.》

《우리는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무조건 통일전선을 해야 한다. 통일전선만이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이 세계에서 우리 민족이 생존할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통일전선은 민족이 민족으로 살아남는데 필요한 영원한 생존방식이다. 민족이 살아나갈 길도 통일전선에 있고 민족이 부흥하고 번성하는 길도 통일전선에 있다. 이것이 내가 해내외의 우리 동포들에게 하고싶은 말이다.》

《우리는 혁명의 길에 나선 첫날부터 언제

나 사고의 출발점을 조선혁명에 두었다. 몸은 비록 이국에 있었으나 마음은 항상 조국에 가있었고 조국의 동포들에게 가있었다.》

《사람이 말까지 빼앗기면 사람으로서는 지능을 잃은 바보가 되는것이며 민족이 민족어를 빼앗기면 한민족이기를 그만두는것이다. 민족의 징표가운데서 피줄의 공통성과 함께 언어의 공통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된다는것은 세상이 다 공인하고있는바이다.

민족어는 민족의 정신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므로 언어를 빼앗고 말살하는것은 민족의 전체 성원들에게서 혀를 잘라내고 얼을 빼앗는 것과 같은 잔학무도한짓으로 된다. 령토와 국권을 잃은 민족에게 남는것이란 언어와 정신밖에 없다.》

《전쟁이나 전투의 가치는 군사적의의에 의해서만 규정되는것이 아니라 그 정치적의의에 의해서도 규정된다. 전쟁이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장이라는것을 알고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것을 어렵지 않게 리해하리라고 믿는다.》

《보천보전투가 가지는 가장 주요한 의의는 조선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던 우리 인민들에게 조선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것을 보여주었을뿐아니라 싸우면 반드시 민족적독립과 해방을 이룩할수 있다는 신심을 안겨준데 있다.》

《혁명은 국제적성격을 띠기 전에 우선 민족적성격을 띤다. 혁명이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는 조건에서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자체의 힘으로 혁명을 완수하려는 확고한 결심과 신념을 가지고 자기 나라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완강하게 투쟁을 벌려나간다면 어떤 어려운 고지든지 능히 점령할수 있다는것이 나의 시종일관한 주장이며 지론이다.》

《설사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함께 통일조국을 건설해나갈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야 합니다. 나는 그 공통분모를 애국, 애족, 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애국, 애족, 애민의 사상을 가지고있는 사람들과는 얼마든지 한공기를 마시며 살아갈수 있습니다.》

《나의 체험에 의하면 혁명은 꿈이 많고 리상이 높은 사람들이 합니다. 꿈이 많고 리상이 높아야 위대한 발명도 합니다.》

《녀성들이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담당한다는 나의 주장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로 물들여진 항일의 혁명력사와 우리나라 녀성해방운동의 직접적인 참가자, 증견자로서의 산 체험에 기초한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혁명은 인간을 매장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인간성을 고수하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기 위한 혁명입니다. 인간을 매장하는것은 쉬운 일이지만 인간을 구원하는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재생의 길을 열어주고 인간으로서 참된 생활을 해나가도록 믿어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대해주고 부활시켜주는것이 가장 값높고 위대한 혁명입니다.》

《리념의 차이나 재산의 유무는 인간을 평

가하는데서 절대적기준으로 될수 없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사람평가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조국애와 민족애, 인민애, 인간애일것입니다. 인간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민족을 사랑하며 민족애가 강한 사람이 조국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의 법칙이며 그 누구도 부정할수 없는 진리입니다.》

《승리한 혁명을 지지하고 옹호하며 그 혁명의 전취물을 보존하고 공고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지니고있는 국제주의적임무인 동시에 의리이고 도덕이기도 합니다. 앞선 혁명을 잘 도와야 뒤떨어진 혁명도 그 련관속에서 성과적으로 약진할수 있습니다.》

《혁명이란 사상의지나 규률만을 가지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사상의지, 도덕의리와 함께 랑만적인 감정정서를 가지고 하는것이 혁명입니다.》

《혁명가와 시련은 언제나 숙명적으로 결합되여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낡은것을 변혁하

고 새것을 창조하는 혁명가의 일상생활은 언제나 시련과 난관을 동반하기때문입니다. 시련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피해다니는 사람들은 혁명가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혁명은 총대를 가지고 해야 하며 민족적독립이나 사회적해방을 위한 모든 투쟁의 결말은 대체로 무장투쟁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우리가 항일혁명에서 승리할수 있었던 기본요인도 자체의 독자적인 혁명무력을 가지고있은데 있습니다.》

《국력도 총대에서 나오고 민족적자부심도 총대에서 나옵니다. 군대가 강해야 민족이 부흥하고 나라도 륭성번영합니다. 총대를 떠난 자주성이란 있을수 없습니다. 총대에 녹이 쓸면 인민이 노예가 됩니다.》

《혁명가의 금새란 혁명에 대한 자주적립장의 확고성에 정비례한다는것이 나의 주장입니다. 자주적립장이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혁명가의 권위는 높아지고 자주성이 투철하면 투철할수록

혁명은 백전백승하는 법입니다.》

《향토애가 강한 사람은 조국애도 강하며 조국애가 강한 사람은 혁명열도 높습니다.》

《혁명이란 투쟁 하나만을 의미하는것이 아닙니다. 혁명에는 투쟁도 있고 생활도 있습니다. 투쟁과 생활을 하나로 융합시키고 투쟁속에서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하여 사회적진보와 번영을 이룩해나가는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지향하고있는 혁명입니다.》

《망국으로 하여 심하게 상처를 입었던 우리 인민의 민족적자존심은 우리가 백두산에서 무장투쟁을 벌린 다음부터 백배, 천배로 증대되였습니다. 그것은 지난날의 민족적자존심과는 대비도 할수 없는 높은 형태의 혁명적자부심입니다. 그러고보면 우리 인민의 참된 민족적자부심과 조국애는 백두산에 그 시원을 두고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조선의 해방은 20성상에 걸치는 항일혁명

투쟁의 총화인 동시에 해내외의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이 수십년동안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희생을 무릅쓰고 거족적으로 벌려온 영웅적인 항전의 결산이라고도 말할수 있습니다.》

《당쟁이 성행하고 당파와 외세가 결탁하면 그 종착점은 망국으로 되는 법입니다.》

《망국은 순간이요 복국은 천년이라는것이 항일혁명 20년의 로정을 걸으면서 내가 얻은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였습니다. 잃기는 헐해도 찾기는 힘든것이 바로 조국이라는 뜻입니다. 순간에 잃은 조국을 찾느라고 수십년, 지어는 수백년의 고생을 해야 하는것이 이 세상의 준엄한 리치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지금도 종종 젊은 사람들에게 조국을 잃으면 살아도 죽은 목숨과 같다, 망국노가 되지 않으려거든 나라를 잘 지키라, 나라잃은 설음으로 통곡하기 전에 조국을 더 부강하게 하고 막돌 한개라도 더 주어다가 성새를 높이 쌓으라고 말해주군 합니다.》

2. 당과 대중

《나는 인민들속에 들어가는것으로 혁명활동을 시작하였고 오늘도 인민들속에 들어가는것으로 혁명을 계속하고있다. 그리고 인민들속에 들어가는것으로 인생을 총화하고있다. 단 한번이라도 인민들과의 접촉을 게을리하고 단 한번만이라도 인민의 존재를 망각하는 순간이 있었다면 나는 10대의 시절에 이미 형성된 인민에 대한 순결하고 진실한 사랑을 오늘까지 간직하지 못하였을것이며 인민에 대한 참다운 복무자가 되지 못하였을것이다.》

《그래서 나는 일군들을 만날 때마다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라고 간곡하게 말하군 한다. 인민들속에 들어가는것은 보약을 먹는것과 같고 들어가지 않는것은 독약을 먹는것과 같다고 늘 강조하군 한다.》

《인민적풍격과 인민의 리익에 부합되는 인민적인 사고방식을 지닌다는것은 결코 탁상앞에

서 이루어지지 않으며 더우기 말공부로써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것은 오로지 사람들의 육성은 물론, 숨결, 눈빛, 표정, 말투, 손세, 몸가짐까지도 자기의 눈과 귀로 직접 포착할수 있는 인민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법이다.》

《혁명가의 생명은 군중속에 들어가는것으로 시작되며 군중을 떠날 때 끝이 난다고 할수 있다.》

《당이 혁명에서 참모부의 역할을 수행하며 당의 역할에 따라 혁명의 승패가 좌우된다는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혁명이 력사의 기관차라면 당은 혁명의 기관차라고 말할수 있다. 그래서 혁명가들은 당을 중시하고 당을 꾸리는 일에 그처럼 큰 심혈을 기울이는것이다.》

《지도사상, 령도핵심, 군중지반, 이것은 당조직을 내오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요소라고 할수 있다.》

《첫 당조직-건설동지사는 우리 당의 태

아였고 씨앗이였으며 당의 기층조직들을 내오고 확대하는데서 모체적의의를 가지는 조직이였다.》

《인민을 위해 당하는 국가의 <손실>은 손실이 아니다. 인민의 복리를 위해 더 많은 돈이 지출될수록 우리 당은 더 큰 기쁨을 느끼며 후대들을 위해 더 많은 <손실>을 당할수록 우리 국가는 더 큰 만족을 느낀다.》

《나는 일심단결, 군민일치를 조선혁명에서 이룩한 가장 빛나는 성과의 하나로 여긴다.》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을 다루는 일군들은 군중과의 호흡을 한시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군중과의 호흡이란 인민이 삽을 들 때 자기도 삽을 들고 인민이 조밥을 먹을 때 자기도 조밥을 먹으며 모든것을 인민과 함께 나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군중과의 호흡을 잘하지 않는 사람은 인민의 감정과 심리를 잘 알지 못하며 그들의 요구와 지향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당은 인덕정치를 하는 당이며 우리 나라는 인덕정치의 혜택아래 만민이 하나의 대가정속에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인덕정치는 사람들의 육체적생명뿐아니라 정치적생명까지도 보호하고 돌보아주어야 할 사명을 걸머지고있습니다. 우리 당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있는것은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입니다.

사상과 리념이 같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이루어진것이 곧 조직이고 당이며 매개 사람들은 그 집단속에서 정치적생명을 받아안게 됩니다. 수백만 대중이 지니고있는 정치적생명이 그대로 조직의 생명으로 되고 당의 생명으로 되는 리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외세의 위협을 항시적으로 받아오고있는 우리 민족의 좌우명은 무엇보다도 민족대단결로 되여야 합니다. 민족의 흥망성쇠여부는 우리 민족모두가 이 좌우명에 얼마나 충실한가 하는데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3. 사상과 리론

《혁명적세계관은 사람들이 자기의 계급적 처지와 리해관계를 인식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착취계급을 증오하고 자기 계급의 리해관계를 옹호하는 사상을 가지며 나아가서는 새 사회를 건설하려는 각오를 가지고 혁명의 길에 나서게 되였을 때 형성된다고 볼수 있다.》

《학습은 혁명가가 자신을 수양하기 위해 반드시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기초적공정이며 사회의 진보와 변혁에 이바지할 밑천을 마련하는데서 단 하루도 중단해서는 안되는 필수적정신로동이다. 선진사상의 탐구과정을 통하여 길림시절에 터득한 교훈으로부터 나는 오늘도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임무라고 강조하고있다.》

《이로부터 나는 자기 나라 혁명은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승리할수 있으며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

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였다. 이것이 지금 말하는 주체사상의 출발점으로 되였다.》

《그때 나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과 사회계급적제관계로부터 출발하여 조선혁명의 성격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고 무장한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광복하자면 무장을 들고 싸워야 하며 로동자, 농민, 민족자본가, 종교인을 비롯한 모든 반일애국력량을 반일의 기치하에 묶어세워 투쟁에 불러일으키고 파쟁이 없는 새로운 혁명적당을 창건하여야 한다는 투쟁방침을 확정하였다.》

《<이민위천>, 인민을 하늘같이 여긴다는 이것이 나의 지론이고 좌우명이였다.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믿고 그 힘에 의거할데 대한 주체의 원리야말로 내가 가장 숭상하는 정치적신앙이며 바로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한생을 인민을 위하여 바치게 한 생활의 본령이였다.》

《공부를 하지 않고 조직생활을 하지 않으

면 혁명을 오래한 투사들도 시대의 락오자가 되고만다.》

《유격전은 자체의 력량을 보존하면서도 적에게 커다란 정치군사적타격을 줄수 있고 적은 력량을 가지고도 능히 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우세한 적을 소멸할수 있는 무장투쟁방법이다.》

《언제나 인민을 믿고 어떤 조건에서도 혁명적신념을 버리지 않으며 자주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하면서 광범한 반일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운것은 항일혁명의 승리를 담보한 주되는 요인이였다.》

《인간의 첫째가는 속성이 자주성인것처럼 민족의 생존을 담보하는 첫째가는 원천도 자주성에 있다. 개별적인 인간들의 생활에 있어서나 민족을 이루는 대집단의 생활에 있어서나 그 운명을 좌우하는 기본적인 생존조건은 자주성이라고 말할수 있다.》

《자주성이란 그 누가 만들어서 선사하는것도 아니며 시간의 루적과 더불어 저절로 이루어

지는것도 아니다. 그것은 투쟁을 통해서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백절불굴의 희생적인 투쟁정신을 발휘하는 사람들만이 자주성을 찾을수 있으며 그것의 영원한 주인이 될수 있다.》

《나는 한평생 민족의 존엄을 위하여 싸워왔다. 나의 일생은 민족의 존엄과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력사였다고 말할수 있다. 우리 민족을 해치거나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건드리는 놈들을 나는 한번도 용서하지 않았다. 우리 인민을 깔보고 우롱하는자들과도 타협하지 않았다.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사람들과는 선린관계를 맺고 친선적으로 지내왔으며 비우호적으로 대하거나 차별시하는 사람들과는 담을 쌓고 살아왔다. 상대가 우리를 치면 우리도 상대를 치고 상대가 우리에게 미소를 보내면 우리도 상대에게 미소를 보냈다. 떡으로 치면 떡으로 치고 돌로 치면 돌로 친다는것이 내가 일생을 통해 고수해오고있는 호상성의 원칙이다.》

《진실을 반영해야만 문학은 독자대중을 아

름답고 숭고한 세계에로 인도할수 있는것이다. 진실의 반영으로써 인민대중을 아름답고 숭고한 세계에로 인도하는것이 바로 문학과 예술의 참 사명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자주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참다운 사상과 참다운 도덕, 참다운 문화를 주는것이 바로 현대예술의 기본사명이다.》

《자주화를 지향하는 각국의 혁명가들과 인민들에게 있어서 조직이 가지는 의의는 영구불변하다고 말할수 있다. 시대가 달라진다고 하여 조직의 역할이 감소되는것도 아니며 혁명이 승승장구한다고 하여 인민대중의 조직화를 약화시켜도 되는것은 아니다. 대중의 조직화는 주권을 전취하기 위한 투쟁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주권을 전취한 후의 국가건설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한 다음 그 성과에 토대하여 혁명을 계속해나가기 위한 투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혁명에 끝이 없는것처럼 대중을 조직화하는 사업에도 종점이라는것은 있을수 없다. 이것이 바로 사회발전의 생리이며 발전된 사회를 건설하

기 위해서 투쟁하는 모든 사람들이 중시하지 않으면 안되는 법칙이다.》

《출판물은 혁명투쟁의 위력한 무기의 하나이다. 이 무기의 사정거리는 무한하다.》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은 결국 사람의 사상의식과 지적능력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사상의식과 지적능력은 학습을 통해서 부단히 높여야 합니다.》

《나는 학습을 잘하지 않는 사람들이 신념이 강한것을 보지 못했고 신념이 강하지 못한 사람이 혁명적의리에 충실한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사람은 학습을 많이 해야 신념도 강해지고 혁명을 하려는 열정도 높아집니다.

김정일동무가 사람은 아는것만큼 보고 듣고 느끼고 받아들인다고 한 말은 아주 의미심장한 명언입니다.》

《인간애와 인민애, 조국애는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전

한 사상과 신념에서 배양됩니다. 나는 도덕품성이 저렬한 사람들이 인간을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가 다른 나라 사회주의와 확연히 구별되는 점은 당과 국가가 물질본위의 경제건설에만 주력하지 않고 사람본위의 사상교양을 선행시키면서 기술실무적으로뿐아니라 정신도덕적으로도 잘 준비된 참다운 인간들을 육성해낸다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제일주의자가 아니고 인간제일주의자인것만큼 우리 나라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는것을 제일 큰 재부로 여깁니다.》

《사대주의란 별것이 아닙니다. 힘이 약할때 남을 쳐다보거나 남들의 덕으로 살아갈 구멍수를 찾게 되면 스스로 사대주의가 생기는 법입니다. 사대주의라는 병은 선천적인것도 아니고 공중에서 떨어지는것도 아닙니다. 자기 힘을 믿지 않거나 그것을 과소평가하게 되면 아무리 애국심이 강하던 사람도 사대주의자로 전락될수 있습니다.》

《세상만물은 무엇이든지 다 개조할수 있다는것이 나의 주장입니다.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개조하고 인간을 개조하는데서 제일 힘든것은 인간개조입니다. 그러나 품을 들이면 다 개조할수 있는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볼 때 아름다운것과 고상한것, 정의로운것을 지향합니다. 그러기때문에 사상교양을 잘하면 누구나 다 개조할수 있습니다. 인간개조라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입니다.》

《진보적인 사상이란 다른것이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 인민에 대한 사랑, 민족에 대한 사랑, 조국에 대한 사랑입니다. 인간의 량심도 결국은 이런 사랑속에서 표현됩니다.》

《사람이 주관에만 사로잡히면 눈뜬소경이 되고맙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만 자기 생각이라고 하면서 아래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있는데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제갈량도 이름난 재사이기는 하지만 인민대중은 그보다 더 지혜롭고 현명합니다.

로선과 방략이란 만사람에게 그 정당성이 확인될 때 비로소 은을 내게 되는것입니다. 대중에게 접수되지 않는 로선과 방략이란 무용지물입니다. 대중은 정당하고 정확하고 투명한 로선을 위해서만 심장을 발동시키는 법입니다.》

《혁명앞에 장벽이 가로놓이고 복잡한 정세가 조성될 때일수록 주체적립장을 더 확고히 견지하고 자주적으로 활동하는것은 우리의 일관한 원칙입니다. 국제당과의 관계에서도 그랬지만 우리는 주변에 있는 큰 나라들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자주성과 국제주의를 옳게 결합시켜나갔습니다.》

《력사는 혁명의 리치를 무시하고 주관주의를 부리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열매를 선사하지 않는 법입니다.》

《혁명의 주체성이란 무엇입니까. 독자적인 판단과 결심을 가지고 자기 나라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혁명을 자주적으로 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하는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있는 사상적미숙성은 학습과 혁명실천을 통해 극복되고 또 그 과정을 통해 사람은 사상적으로 단련되고 원숙해지는 법입니다.》

《사상사업은 일이 힘들고 정세가 엄혹한 때일수록 더 잘해야 합니다. 나는 사상론을 주장합니다. 나는 사상지상주의자이며 사상을 그 어떤 재부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학습도 전투라는 말은 우리가 실지생활에서 찾아낸 진리입니다. 혁명가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한순간도 학습을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학습을 하지 않으면 사상에 녹이 쓸고 앞을 내다볼수 없습니다.》

《오늘의 난관을 웃음으로 헤치며 래일의 조국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 사색과 탐구를 거듭해가며 후대들의 미래를 설계해가는 사람들만이 참다운 공산주의자, 열렬한 혁명가로 될수 있습니다.》

4. 인민과 충복

《조선민족만큼 정에 잘 웃고 잘 우는 그런 민족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러기에 옛사람들도 귀신은 경에 막히고 사람은 인정에 막힌다고 하지 않았던가.

손님을 환대하는것은 조선사람의 장점이다. 쫓지 않고 재워주는것이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인민의 풍속이고 인심이다.》

《인민은 자기를 동정하고 리해해줄줄 아는 사람들앞에서는 그가 누구든지 서슴없이 마음의 대문을 열어제낀다. 그리고 불타는 열광으로써 그들을 품어안는다. 하지만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토양이 인민이라는 생각을 한번도 해본적 없는 배은망덕자들, 인민에게는 자기를 섬겨줄 의무가 있고 자기에게는 그 시중을 받을 권리만 있다고 여기는 건방진 인간들, 인민을 아무렇게나 다스려도 된다고 간주하는 관료배들, 인민을 아무때나 짜도 우유를 내는 젖소처럼 여기는 착취자들, 인민을 사랑한다고

말끝마다 떠들어대면서도 인민이 고통스러워할 때에는 눈을 가리고 슬쩍 지나가는 말공부쟁이들과 위선자들, 건달군들, 협잡배들앞에서는 사정없이 빗장을 지른다.》

《내 일생에서 은인들의 도움을 받는 일이 여러번 되풀이되였다면 그 우연은 분명 내편이였다고 말할수 있다. 인민을 위해 한생을 바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연조차도 선심을 베푸는 법이다.》

《인민의 사랑속에 사는 사람은 행복하고 인민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이것은 나의 일생을 관통하고있는 행복에 대한 가치관이다. 지난날에도 그러하였지만 지금도 나는 인민의 사랑을 받는데서 최대의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있다. 인생의 첫째가는 진미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가. 이 진미를 아는 사람만이 인민의 참된 아들이 되고 충복이 될수 있다.》

《인민은 우리의 힘이며 지혜이며 생명

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서 배우며 인민에게 의거하고 인민을 발동시켜 싸워야 한다, 인민의 덕을 입으려면 인민의 사랑을 받아야 하며 인민의 사랑을 받으려면 먼저 인민을 사랑하여야 한다.》

《인민의 지지를 떠난 군대가 결코 강군으로 될수 없으며 싸움에서 승자로 될수 없다는것은 항일혁명의 전기간 우리가 뼈에 사무치게 체험한 진리이다.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의 나날에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처럼 유격대가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는것을 시종일관하게 주장해왔다. 그것을 한마디로 압축한 구호가 바로 <옹군애민>이였다. <옹군애민>이란 인민은 군대를 옹호하고 군대는 인민을 사랑한다는 뜻이다.》

《인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대하며 인민의 리익을 진정으로 옹호보위하고 인민의 생명재산을 진정으로 지켜주는 군대만이 인민들로부터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받을수 있다.》

《나도 일생을 통해 절실히 체험한바이지만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려면 자신을 먼저 인민의 아들딸, 인민의 충복, 인민의 벗이라고 생각해야 하며 동시에 인민을 자기의 부모, 자기의 형제, 자기의 선생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자기를 인민의 선생, 인민우에 군림한 관료, 인민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인민들속으로 들어갈수 없으며 인민의 신임을 받을수가 없다. 인민은 그런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자기를 인민의 머리우에 군림한 특수한 존재로 여기게 되면 결국 군중의 버림을 받는 가련한 존재가 되고만다. 물우에 뜬 기름방울처럼 사람들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겉에서만 맴돌면 군중의 호감을 살수도 없고 그들을 쟁취할수도 없다.》

《인민의 사랑, 인민의 지지, 나는 지금까지 이것을 혁명가의 존재가치와 혁명가가 향유할수 있는 행복을 측정하는 절대적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인민의 사랑과 지지를 떼놓으면 혁

명가에게 남는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르죠아정객들은 돈으로 인민들을 유혹하지만 우리는 피와 땀을 바쳐 인민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나는 인민이 나에게 주는 이 신임앞에서 감격하였으며 그것을 내가 누릴수 있는 일생일대의 락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5. 인간과 생활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사랑처럼 따뜻하고 진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은 없을것이다. 꾸짖어도 매질을 해도 아프지 않은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며 자식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는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다. 그 사랑은 대가를 모른다.》

《<지원>의 사상, 3대각오, 동지획득에 대한 사상, 두자루의 권총, 이것이 내가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유산의 전부였다. 그것은 모진 고생과 희생을 전제로 하는 유산이였다.》

《사람에게 한생을 두고 회고할수 있는 스승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행복한 인간이다.》

《사람이 혁명을 한다고 가정을 망각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며 그것은 또 있을수도 없는 일이다. 혁명도 인간을 위한것인데 혁명가들이 어떻게 가정을 무시하고 부모처자의 운명에 무심

할수 있겠는가. 우리는 항상 가정의 행복과 나라의 운명을 하나의 맥락에서 보아왔다. 나라가 역경에 처하면 가정도 편안할수 없으며 가정에 그늘이 지면 동시에 나라의 표정도 어두워진다는것이 우리의 지론이였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대를 이어가며 싸워서라도 기어이 나라의 광복을 이룩해야 한다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심어준 스승이라면 어머니는 일단 혁명을 시작한 사람은 인정에 끌리거나 곁눈을 팔지 말고 끝장을 볼 때까지 오로지 목적한바를 실현하기 위해서만 노력해야 한다는 리치를 깨우쳐준 고마운 선생이였다.》

《우정의 심도를 결정하는것은 시간도 아니고 말수더구도 아니다. 오래 사귄다고 하여 우정이 깊어지는것도 아니며 짧게 사귄다고 하여 얄팍한 우정이 생기는것도 아니다. 문제는 인간을 대하고 인간의 운명을 대하는데서, 자기 민족과 민족의 운명을 대하는데서 어떤 립장과 태도를 가지는가 하는것이다. 이런 립장과 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우정을 배가할수도 있고 파

탄시킬수도 있다. 인간에 대한 사랑, 인민에 대한 사랑, 조국에 대한 사랑, 이것은 우정을 결정하는 시금석이다.》

《나는 원래 생활을 비관적으로 감수하는 사람들보다도 락천적으로 감수하는 사람들을 더 좋아하였다. 우리가 산에서 풀뿌리를 우려먹으며 어려운 무장투쟁을 하던 그 시기에는 한명의 락천가가 몇십문의 대포와 맞먹는 힘을 내였다.》

《돈주머니가 크고 재물이 많아도 인덕이 없으면 세상의 버림을 받는다. 오막살이에서 살아도 인덕이 높으면 많은 이웃을 가지게 되고 뭇사람의 존경을 받는 도덕적인 부자가 된다.》

《참다운 인정은 고대광실이 아니라 평민들이 사는 오두막에 있었다.》

《만일 그 누가 나에게 당신의 생활에서는 어떤 때가 제일 기쁘고 행복한 때로 되고있는가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것이다.

<나의 생활에서 기쁨과 행복은 례사로운것으로 되고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리상적인 생활을 창조하고있는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자주적이고 사상적으로 가장 진보적이며 문화도덕적으로 가장 문명하고 순결무구한 인민과 더불어 한생을 락천적으로 살아가고있기때문이다. 나의 생활은 매일 매 시각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되여있다.

특별히 기쁘고 행복한 때가 있다면 그것은 인민들속에 들어가는 때이며 그 인민들속에서 온 나라의 본보기로 내세울수 있는 훌륭한 인간들을 발견하고 그들과 함께 시국을 론하고 생활을 론하고 미래를 론할 때이다.

그리고 우리가 나라의 꽃봉오리라고 부르는 아이들속에 있는 때이다.>

이것은 나의 일생을 좌우하고있는 행복관이라고 말할수 있다.》

《인간들이 사는 곳에는 응당 생활이 있어야 하고 생활이 있는 곳에는 마땅히 예술이 있어야 한다. 예술이 없는 세계를 어떻게 인간세계라고 할수 있으며 예술이 없는 생활을 어떻게

인간생활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그러기에 나는 사람들에게 늘 문학예술을 사랑하라고 말해왔고 또 온 나라 대중에게 문학과 예술을 향유하고 창조할줄 아는 인간이 되라고 말하고있다.》

《매력이란 결코 복잡하고 현란하고 다사스럽고 야단스러운것에서 생기는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장 단순하고 평범하고 소박하고 솔직한 여기에 인간이 지니고있는 매력의 핵이 있다.》

《백두밀림과 만주광야에서 항일투사들을 하나의 큰 가정속에 묶어세운것도 역시 정이였고 사랑이였다. 인간이 사는 곳에 정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산천도 빛을 잃는 법이다.》

《우리의 인생체험에 의하면 노래는 혁명적락관주의의 상징이고 혁명승리의 상징입니다. 내가 자주 말하지만 인간생활에는 시도 있고 춤도 있고 노래도 있어야 합니다. 인간생활에 시도 없고 춤도 없고 노래도 없다면 무슨 살

재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락관주의를 주장하며 락천적인 인간들을 사랑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것이 내가 중시하고있는 좌우명의 하나입니다. 내가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도 어떤 동요나 편향이 없이 건강한 몸으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해올수 있은것은 이 락관주의의 덕입니다.》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되고 좋은 친구는 헤여졌다가도 다시 만나기 마련입니다.》

《<삼익우>라는것은 사귀여서 도움이 되는 세가지 리로운 벗이라는 뜻입니다. 다시말해서 정직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 견문이 넓은 사람은 <삼익우>인데 그런 사람들과는 사귀여도 좋다는것입니다.

<삼손우>라는것은 사귀면 손해를 보게 되는 세가지 벗이라는 뜻입니다. 즉 편벽한 사람, 착하기는 하나 주대가 없는 사람, 말만 앞세우고

실속이 없는 사람은 사귀지 말아야 한다는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된다.>는것은 좋은 격언입니다. 좋은 친구를 얻으려면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나라와 집단과 동지와 이웃을 위해 좋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친구가 생기지 않습니다.》

《나는 개인리기주의도 반대하지만 민족리기주의도 반대합니다. 자기만 잘살내기를 해서야 그게 무슨 인간다운 생활입니까. 사람이 누리는 락중에 남을 도와주는것보다 더 큰 락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인간의 생리적년령이 생활을 얼마나 락천적으로 하는가 하는데 따라 좌우되는것처럼 한 나라 혁명의 성패나 생명력은 혁명적락관주의에 의해 좌우된다는것이 나의 견해입니다.

사람은 락천적으로 살아야 하루를 살아도 사는 보람을 느낄수 있습니다. 사기가 없이 우

울하게 생활하는 군대는 단결도 안되며 싸움도 잘할수 없습니다.》

《혁명적락관주의는 저절로 생기는것이 아닙니다. 부단한 교양, 부단한 사상단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것이 혁명적락관주의입니다.》

《인생의 첫 자욱을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뗀 사람은 인생의 마감도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일생이 사람들의 추억속에 영원히 남는 고결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될수 있습니다.》

6. 군사와 지휘관

《전투는 일상생활의 연장이며 총화라고 할수 있다. 군인들의 전투성과는 싸움마당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평상시의 생활에서 사전에 결정되는 법이다. 전투는 그 일상생활의 반영이고 단적인 표현일따름이다.》

《전쟁은 힘의 대결일뿐아니라 도덕과 륜리의 대결이기도 하다. 전쟁행정에서 도덕이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하거나 도덕자체를 불필요한 치장품으로 여긴다면 그런 군대는 하나의 거대한 오물더미와 같은것이다.》

《지휘관은 언제나 주동적으로 지휘를 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정황앞에서 동요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결단성있게 행동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지휘관이 지휘에서 주관주의와 독단을 부려도 된다는것은 아니다. 지휘관은 상급의 명령집행과 전투지휘에서 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할줄 알아야 한다.

지휘관은 명령 하나만으로 부대를 지휘하지 말고 정치사업을 앞세워 대원들의 자각적열의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우리 나라는 세상에 대고 당당히 자랑할만 한 위력한 무기를 가지고있다. 그것이 바로 군민일치, 관병일치이다.

그런 위력한 무기는 그 어떤 군사과학이나 기술로써도 만들어낼수 없는것이다. 오로지 참다운 사랑만이 만들어낸다.》

《싸움이란 결국 지혜와 지혜의 대결인 동시에 신념과 신념의 대결, 의지와 의지의 대결, 용기와 용기의 대결이기도 하다.》

《지휘관이 배짱군이면 전사들도 배짱꾸러기가 되고 지휘관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있으면 전사들의 신념과 의지도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전사들의 랑만이 지휘관의 신념에 따라 좌우되는것처럼 인민대중의 락관주의는 지도자의 신념과 배짱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려운 때 대중이 지휘성원들의 얼굴부터 쳐다보는것은 그때문입니다.》

《전투정황에 뜻하지 않은 변동이 생기고 장애가 가로놓일 때일수록 지휘관은 강철같은 의지와 담력을 가지고 랭철한 사고력을 발동하여 조성된 정황에 대처하여 림기응변의 방법으로 침착하게 역경을 헤쳐나가야 한다. 국가의 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대적투쟁에서나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투쟁에서나 이런 요구는 불가피하게 제기된다고 생각한다. 정황변동에 능란하게 대처하며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결심을 신속히 하는것은 모든 지휘관들이 한결같이 지니고있어야 할 중요한 자질이다.》

7. 신념과 의리

《사상이 변하고 신념만 변하면 의리나 인정도 동시에 변하는 법이다. 지난날 죽자살자하면서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사이에 틈이 생기고 인간적결렬이 생기게 되는것도 다 어느 한쪽의 사상이 변하는데서 오는것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장담하던 우정이나 동지적뉴대도 어느 일방이 사상적으로 변질되면 금이 가기마련이다. 사상을 고수하지 않고서는 의리나 친분관계도 지켜낼수가 없다는것이 그후 장구한 혁명투쟁과정을 통하여 내가 얻은 하나의 교훈이다.》

《혁명을 하는 사람들이 생명까지도 서슴지 않고 의탁할수 있는 결백하고 견실한 의리는 역시 근로하는 인민들속에 있었다. 그러기에 나는 늘 전우들에게 혁명을 하다가 곤난한 일이 생기면 인민을 찾아가라고 하였다. 배고파도 인민을 찾아가고 물을 먹고싶어도 인민을 찾아가며 슬픈 일이 생겨도 인민을 찾아가라고 하였다.》

《혁명가의 투쟁행로에 난관이 없다면 그것은 사실상 혁명이라고 말할수 없을것이다. 혁명가는 이런 때일수록 의지를 가다듬고 신심에 넘쳐 완강하게 시련을 타개해나가야 한다.》

《강철도 산화되면 변하는 법이다. 인간은 강철도 아니거니와 그 강철보다 약하고 변이성이 많은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은 강철보다 훨씬 더 억세다고 말할수 있다. 강철은 자기 힘으로 산화과정을 막을수 없지만 인간은 자기의 사상속에서 일어나고있는 변화를 스스로 통제하고 조정할 능력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인간을 만물의 령장이라고 하는것은 바로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조절할줄 아는 고유한 능력을 가지고있기때문이며 혁명가를 위대하다고 하는것은 바로 그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역경을 순경으로 만들줄 아는 강의하고 창조적이고 희생적인 인간들이기때문이다.》

《테로는 테로한테 망하고 좌경은 좌경의 심판대에서 죽는다는것, 신념과 주대가 없이 간

에 붙었다 설에 붙었다 하는 사람에게 차례지는 운명은 자멸이라는것이 수십년에 걸치는 동란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내가 얻은 또 하나의 인생체험이라고 할수 있다.》

《사람이 돈이나 물건에 포로되면 당도 수령도 조국도 인민도 안중에 없고 나중에는 부모처자조차도 모르는 인간추물이 되고만다는것이 80풍상의 인생을 총화하면서 내가 후대들에게 하고싶은 말이다.》

《인간의 도리는 봉건적인 도덕에서 말하는 군신과 부자지간에만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벗과 동지들사이에도 존재한다. 붕우유신이란 이런 리치를 담고있는 성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옛 성현들은 덕과 의리에 기초하는 덕치주의를 선양하여 인자무적이라고 하였다. 덕이 있으면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 땅이 있는것이고 땅이 있으면 재물이 생기는것이고 재물이 있으면 씀이 있느니라고 하였다. 덕인지재용이라는 다섯가지의 글자로 함축되는 옛 동방철학의 이 리치는 참으로 오묘하며 현대생활에

서도 참고할 가치가 크다고 본다.》

《산 사람은 희생된 사람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잊지 않을 때라야 그 우정이 공고하고 진실하고 영원한것으로 될수 있다. 만일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잊는다면 그 순간부터 우정은 사멸을 면치 못한다. 죽은 사람을 자주 추억하고 그들의 업적을 널리 소개하며 그들이 남기고간 후대들을 잘 돌보고 그들이 남긴 유지를 잘 지키는것이 선대들과 선렬들, 먼저 간 혁명동지들에 대한 산 사람들의 의리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리가 없다면 력사와 전통의 진정한 계승이 있을수 없다.》

《무한히 량심적인 사람만이 무한히 솔직한 법이다. 솔직성은 흰눈처럼 깨끗한 량심의 반사이며 감춰내지 못하는 량심의 빛이다.》

《웃사람들의 눈치를 봐가며 흰것을 검다고 하거나 검은것을 희다고 하며 시세에 따라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 방법으로 웃사람들에게 발라맞추는것은 충신이 아니라 간신이다.

간신들의 혀끝에서는 진실이 서식하지 못한다.》

《항일혁명시절의 의리가운데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령도자와 대중사이의 의리이다. 우리는 조선혁명에서 통일단결의 중심이 형성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령도자와 대중과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돌리였으며 령도자와 대중의 혼연일체와 도덕의리적결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령도자는 대중을 위해 복무하고 대중은 령도자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것이 바로 령도자와 대중사이에 흐르는 우리 식의 공산주의적의리이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자기 지도자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데서뿐아니라 혁명동지들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데서도 최상의 경지를 개척하였다. 사랑에는 사랑으로 보답하고 믿음에는 믿음으로 대답하며 은혜는 은혜로 갚는것이 항일유격대원들의 의리였다.》

《내 일생의 총적지향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라고 할수 있다. 나는 혁명의 길에 나선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맞받아나가는 공격전술로 한생을 살아왔다. 전진도상에 난관이 가로막아나설 때마다 나는 그앞에서 주저앉거나 동요하지 않았다. 그것을 에돌거나 피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신심을 잃지 않았고 불굴의 의지와 완강한 노력으로 그것을 극복하였다.》

《혁명이란 신념을 가지고 하는것인데 그 신념이란 정치적리념에 대한 믿음이기 전에 자기 인민에 대한 믿음과 긍지인것이다. 자기 민족, 자기 인민에 대한 믿음과 긍지가 없다면 과연 어디서 애국심이 나올수 있겠는가.》

《신념과 의지는 혁명가가 갖추어야 할 기초적자질이다. 이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혁명가라고 말할수 없다.

참된 인간의 표징을 론할 때 우리는 그가 무슨 사상과 신념을 어떻게 지니고있는가에 대하여 응당하게 중시한다. 왜냐하면 사상과 신념이 강

한 인간일수록 삶의 목표가 뚜렷하고 그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노력에 성실하기때문이다.》

《신념과 의지는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다. 환경과 조건에 따라 더욱 굳건해질수도 있으며 약화될수도 있고 변질될수도 있는것이 신념과 의지이다. 혁명가의 신념과 의지에 변질이 생길 때 그 혁명은 헤아릴수 없는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

《신념과 의지의 련마는 혁명적인 조직생활과 실천활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질수 있으며 부단한 교양과 자체수양과정을 거쳐야 견고하고 확실한것으로 될수 있다. 이런 공정을 경과하지 않은 신념이나 의지는 사상루각과 같다.》

《공고한 기초우에 선 신념이란 어떤것인가? 그것은 자기가 숭상하는 리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며 그 리념을 위해서라면 굶어죽을 각오, 얼어죽을 각오, 맞아죽을 각오까지 되여있는 그런 신념이다. 달리 말하면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자기 계급, 자기 인민의 힘에 대한 확신

이며 자체의 주체적인 힘으로 만난을 극복하면서 혁명을 끝까지 완수해나가려는 각오를 의미한다.》

《신념이 강하고 의지가 강할수록 그 인간은 정치적생명을 유지하는데서 장수자가 된다. 신념을 일찌기 줴버린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은 비명에 요절하고만다.》

《력사적경험은 혁명이 승승장구하고 정세가 유리할 때에는 대오안에서 동요분자, 변절자들이 나오지 않지만 내외정세가 복잡하게 변하고 혁명의 길에 어려운 난관이 조성될 때에는 대렬안에서 사상적혼란과 동요가 생기고 투항분자, 락오분자들이 나와 막대한 해독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내가 념두에 둔 사상수양이란 주로 신념교양, 락관주의교양을 의미한다. 사람이 사상단련을 잘하지 않으면 역경에 부닥쳤을 때 곤난앞에서 인차 굴복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지금도 사상제일론을 주장한다.》

《사람이 자기 인민의 힘을 믿지 않으면 어려운 환경에 부닥칠 때 례외없이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며 패배주의에 빠지면 곧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을 잃고 투쟁을 포기하거나 중도반단하게 된다.》

《우리 나라가 그 어떤 역풍에도 드놀지 않는 강한 나라로 된것은 우리 당의 신념이 강하고 우리 인민의 신념이 강한 덕이다. 신념이 강한 당은 변질되지 않고 신념이 강한 국가는 붕괴되지 않으며 신념이 강한 인민은 와해되지 않는다.》

《사람은 리해관계로부터 혁명을 추동할수도 있고 훼방할수도 있습니다.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투쟁하는 사람들의 사상은 금강석처럼 변하지 않지만 혁명의 리익과 인민의 리익은 안중에도 없이 개인의 안녕과 향락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사상은 인차 변질되고맙니다. 어려운 때에 혁명을 제일 쉽게 배신하는것이 바로 개인주의와 리기주의에 중독된 인간들입니다.》

《자기자신과 자기 인민의 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닿게 되는 종착점이 바로 사대주의이며 이 사대주의가 안내하는 길이 매국과 반역입니다.

사대주의자들치고 조국과 민족을 깔보지 않는자가 없으며 자기 조국과 민족을 깔보는 사람들치고 매국과 반역에로 가지 않는자가 없다는것은 지난날의 력사가 충분히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눈은 현실을 보지만 신념은 미래를 봅니다.

신념이 무너지면 정신이 죽고 정신이 죽으면 인간자체가 무용지물로 됩니다. 인간의 도덕의리나 량심도 다 신념에 바탕을 두고있습니다. 신념이 없는 사람들은 량심도 지닐수 없고 도덕의리도 지킬수 없으며 인간적인 체모도 유지할수 없습니다. 사람은 신념이 강할 때 자신의 삶도 훌륭하게 개척해나갈수 있고 동지들을 위해서도 처신을 똑바로 할수 있으며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도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습니다.》

《종파적습성에 물젖은 사람들한테는 례외없이 출세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출세의 기회가 차례지지 않게 되면 남을 등에 업거나 권모술수를 써서라도 어떻게 하나 벼슬자리를 따내려고 애씁니다.》

《나의 체험에 의하면 신념을 가지고 혁명하는 락천가들은 옆에서 무슨 바람이 불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래일 당장 교수대에 오른다고 해도 요지부동입니다. 하지만 뚜렷한 신념도 없이 모두가 혁명을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혁명에 뛰여든 사람들은 아무때든지 아늑한 곳으로 달아나버립니다.》

《혁명가의 인생관이나 인간적품격, 그들의 생활 신조와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점은 신념이나 의지, 불굴성에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중요한것은 그들이 그 누구보다도 리상과 포부가 웅대하고 어떤 환경에서나 그 리상과 포부가 꽃피게 될 미래를 확고하게 락관한다는데 있습니다. 혁명적신념과 의지와 락관은 혁명가가 지녀야 할 3대특질, 혁명가의

사상정신적품격을 이루고있는 3대요소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신념은 혁명가의 생명입니다.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은 어디에서 생기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힘을 믿는데서부터 생깁니다. 자기 령도자에 대한 믿음, 자기자신의 힘, 자기 집단의 힘, 자기 인민의 힘, 자기 당의 힘을 확고하게 믿을 때만이 혁명가의 신념이 고수되는 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정한 신념을 가지고 혁명의 길에 들어섭니다. 문제는 그 신념을 얼마나 오래 고수하는가 하는것인데 그것은 련마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련마과정을 떨떨하게 거친 신념은 인차 부패변질됩니다. 신념을 련마하는 수단으로 되는것이 바로 조직사상생활과 혁명실천을 통한 정치사상적단련입니다.》

《혁명가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는것은 곧 량심을 가진 존재, 도덕의리에 충실한 존재가 되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량심을 가져야 도덕도 알게 되고 의리도 지키게 됩니다. 량심

을 저버린 사람들에게는 도덕도 의리도 희생성도 정의감도 성실성도 있을수 없습니다.》

《량심을 가진 사람만이 혁명가로 될수 있고 량심에 때가 오르면 신념에도 때가 오르며 량심에 금이 생기면 신념에도 금이 생기고 투지가 마비됩니다.》

《백날을 굶어도 살아날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 단 하루의 떳떳한 삶을 위해 천날고생도 달게 받아들이는 사람, 절해고도에 홀로 떨어져 이름모를 숲속에서 한점의 티끌로 사라져도 조직이 자기를 찾고 자기의 이름을 기억해줄것이라고 믿는 사람들, 자기를 키워준 지도자와 동지들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폭도 하고 교수대에도 서슴없이 올라서는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만이 언제나 승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교양,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신념교양은 나라의 형편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 잘해야 합니다. 나는 신념이 강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

《력사의 쓰라린 교훈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후계자의 표징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수령과 수령의 위업에 대한 충실성이며 도덕의리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도덕의리를 떠나서 존재할수 없습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도덕의리, 이것은 후계자가 갖추고있어야 할 첫째가는 표징입니다.

그리고 높은 자질과 령도풍모를 지닌 실력가만이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빛내여나갈수 있습니다.》

《력사에 이름을 남긴 성공한 지식인들은 례외없이 다 자기 조국과 민족 앞에 충실하고 신념과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지식인들에게 조국과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불굴의 의지와 혁명적신념을 간직할데 대해 강조하고있습니다.》

8. 믿음과 동지애

《자본가들은 돈을 모으는 재미가 별재미라고 하지만 나한테는 동지를 모으는 재미가 최상의 락이고 재미였다. 동지 한명을 얻을 때의 희열을 어찌 황금덩이 하나를 얻을 때의 기쁨에 비길수 있겠는가. 동지를 얻기 위한 나의 투쟁은 이렇게 화성의숙에서부터 첫발자국을 떼였다. 그때부터 나는 한생을 동지를 얻는 일에 바치였다.》

《인정은 시간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있다. 시간의 힘앞에서는 모든것이 퇴색하고 조락해버리지만 인정 하나만은 매장시켜버리지 못한다. 진실하게 맺어진 우정이나 사랑에는 로쇠라는것도 있을수 없고 변질이라는것도 있을수 없다.》

《그러기에 나는 지금도 사람을 믿는것은 좋지만 환상을 가지고 대하면 안된다고 말한다. 환상이란 비과학적인것이기때문에 거기에 사로

잡히면 아무리 뛰여난 천리혜안을 가진 사람도 수습하기 어려운 실수를 범할수 있다.》

《혁명은 동지들을 얻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자본가의 밑천은 돈이지만 혁명가의 밑천은 사람이다. 자본가가 돈을 밑천으로 하여 치부의 탑을 쌓아나간다면 혁명가는 동지를 밑천으로 하여 사회를 변혁하고 개조해간다.》

《좋은 사람이 있다는 말만 들으면 그가 어디에 있건 끝까지 찾아가 기어이 손을 잡고 동지로 포섭하던 아버지의 모습은 나에게 인재가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 진정한 동지를 얼마만큼 많이 얻는가에 따라 혁명사업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진리를 깨우쳐주었다.》

《진실한 동지적사랑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혁명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맛볼수 없으며 총탄이 우박치는 전투장에서 생사를 같이해보지 않고서는 터득할수 없는 사랑이다.》

《돈이나 리윤추구의 견지에서가 아니라 리

념의 공통성에 의해서 사상의리적으로 결합된 혁명가들의 집단에서 믿음은 그 집단의 통일단결과 공고한 발전을 담보하는 첫째가는 생명으로 된다고 말할수 있다. 집단의 매개 성원들은 믿음의 힘에 의하여 동지를 사랑하게 되며 믿음의 힘에 의하여 상급이 하급을 아끼고 하급이 상급을 존대하는 공산주의적의리가 집단을 지배하게 된다.》

《자본가들이 돈이 없이 살지 못한다면 공산주의자들은 믿음이 없이 살지 못한다. 우리나라에서 믿음은 사회관계의 총체로 되고있으며 집단주의의 존재방식으로 되고있다. 조직이 자기를 믿어주고 동지들이 자기를 믿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과 조국을 위한 투쟁에서 무진장한 힘을 발휘할수 있다. 믿음은 충신을 낳고 불신은 역적을 낳는다는 격언은 이런 리치를 반영하는 말이 아니겠는가.》

《전우의 아들이자 나의 아들이고 나의 아들이자 전우의 아들로 되는것이 바로 공산주의적인간관계이다. 내가 아플 때 동지도 아프고

동지가 아플 때 나도 아프며 내가 배고플 때 동지도 배고프고 동지가 배고플 때 나도 배고픈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들로 부각시키는 륜리도덕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재산의 유무나 대소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다. 사람을 평가하는 나의 기준은 그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인민을 얼마나 사랑하며 조국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데 있었다. 부자라고 하더라도 조국을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좋은 사람으로 보았고 무산자라 하더라도 조국애와 인간애를 지니지 못한 사람이라면 좋지 않은 사람으로 보았다. 한마디로 말하여 사상을 기본으로 하여 사람을 평가하였다.》

《한 인간의 죽음이 우정을 마감짓는 종막으로 된다면 그런 우정을 어떻게 진실한 우정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잊지 않고있을 때 그 우정은 그것만으로도 살아있는 우정, 생명을 가진 우정으로 되는것이다.》

《죽은 사람에 대한 산 사람의 우정은 희생된 사람들의 자녀들에 대한 산 사람의 사랑과 배려를 통해서도 계속된다고 말할수 있다.》

《공고한 동료관계는 실전속에서만 발전할수 있으며 거듭되는 시련을 통해서만 그 진가를 가늠할수 있다.》

《나는 동지애를 혁명가의 자질을 검증하는 시금석이라고 보았다.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인간으로 되게 하는 인격의 핵이고 도덕적기초이며 공산주의자들을 다른 인간들과 구별하게 하는 하나의 뚜렷한 징표이다. 만일 인간에게 동지애라는것이 없다면 그 인생은 기초가 없는 구조물처럼 허물어지고만다. 동지애가 강한 인간은 설사 부족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쉽게 고칠수 있는 힘을 가진다.》

《법의 힘만으로는 세상만사를 다 총찰할수 없다. 법이 못하는 일을 법을 대신해서 해내는 것이 바로 의리와 도덕이다.

우리는 동지를 얻는것으로부터 혁명을 시작

하였고 동지적의리와 단합을 강화하고 인민들속에 깊이 침투하여 그들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혁명을 부단히 심화시키였다. 지금도 그렇지만 지난날에도 동지애는 우리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생명선이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이 걸어온 수십성상의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은 동지애와 동지적의리의 발전력사라고도 말할수 있다.》

《직위라는것은 고정불변한것이 아니여서 높다가도 낮아지고 낮다가도 높아지는것만큼 진정한 동지적관계를 유지하려면 직위를 따를것이 아니라 인간을 따라야 한다.

사람은 자기의 이웃이 곡절을 겪을 때일수록 그를 더 따뜻하게 충심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불신을 해서 덕을 볼것은 없지만 믿음으로는 많은것을 얻을수 있습니다.》

《혁명이 어려운 고비를 겪을 때일수록 사람에 대한 환상은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사람을 믿어주고 사랑해주는것은 좋지만 환상적

으로 대하는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상이란 고정불변한것이 아닙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며 래일이 다를수 있는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고생끝에 이루어진 상봉일수록 그 열도는 더 큰것 같습니다. 동지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려면 서로 헤여져있어도 보아야 합니다. 피를 나눈 동지들이 서로 리별도 하고 상봉도 하는 과정에 동지애는 더 공고해지고 열렬해지는 법입니다. 이런 동지애는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쉽사리 깨지지 않습니다.》

《나는 혁명을 하면서 많은것을 체험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가슴깊이 새긴것중의 하나가 동지에 대한 체험입니다.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결사의 각오를 품고 혁명의 길에 나선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귀중한것이 바로 동지이고 동지애입니다. 진실한 동지는 제2의 나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충직하고 의리깊은 동지들이 뭉치면 하늘도 이길수 있습

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동지를 얻으면 천하를 얻고 동지를 잃으면 천하를 잃는다고 말하군 합니다.

동지라는 말은 뜻을 같이한다는 말인데 뜻이란 곧 사상입니다. 일시적인 리해관계나 타산에 의하여 맺어진 동지관계는 공고할수 없으며 때에 따라 쉽게 깨여지고맙니다. 그러나 사상의지적으로 결합된 동지관계는 영원하며 총알도 단두대도 그런 동지관계를 갈라놓을수 없습니다.》

《부모자식간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 련인간의 사랑, 사제간의 사랑, 동지간의 사랑을 비롯하여 인간생활에 존재하는 사랑에서 중요한것은 헌신성이라고 봅니다.

자기는 굶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은 굶지 않게 하며 자기는 춥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은 춥지 않게 하며 자기는 아프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은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불속에도 들어가고 형틀앞에도 나서고 얼음구멍에도 뛰여드는 그런 자기희생적인 헌신성만이 가장 아름답고 숭고하고 진실한 사랑을 창조할수 있습니다.》

《전우애란 생명력이 강한 사랑입니다. 전우애가 생명력이 강한 사랑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초연속에서 련마된 사랑이고 동지를 대신하여 불속에도 들어갈수 있고 죽을수도 있는 사랑이기때문입니다.

사람이 의리에 충실하는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의리로 하여 인간은 숭고한 존재로 되고 의리로 하여 인간생활은 백화만발한 화원처럼 아름다와지는것입니다.》

《나는 열다섯살때 어머니의 슬하를 떠난 이후로는 줄곧 인민들과 동지들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항일혁명의 나날이나, 새 조국건설의 나날이나, 조국해방전쟁의 나날이나 동지들은 나를 시종일관 성실하게 도와주고 보호해주었습니다. 방패가 되여 총알도 막아주고 눈비도 막아주고 병마도 막아주었습니다. 내가 마음고생을 할 때도 동지들과 인민들이 나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나도 힘이 진하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면 먼저 동지들과 인민들부터 찾군 했습니다. 그들만 있으면 없던 힘도 생기고 캄캄하던 앞길

도 트이였으며 어떤 어려운 일도 다 해낼수 있다는 자신심도 가지게 되였습니다.》

《항일혁명의 전 로정은 인민대중을 력사의 주체로 보고 그들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광복성전의 1선에 내세워준 사랑과 믿음의 력사이며 인민대중자신이 자기의 피와 땀으로써 당당한 력사의 주체임을 과시해온 위대한 투쟁과 창조의 력사입니다. 이 인민과 인민혁명군의 투사들이야말로 새 조국 건설을 담당하게 될 우리 혁명의 주체였습니다. 인민의 사랑과 지지속에서 인민의 힘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여 투쟁할 때 그 어떤 준엄한 시련도 이겨낼수 있으며 그 어떤 어려운 투쟁속에서도 승리할수 있다는것은 우리가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찾아낸 귀중한 진리입니다.》

9. 전통과 계승

《꿈도 없고 담력도 없고 열정도 패기도 투지도 랑만도 없는 청춘은 청춘이 아니다. 젊은 시절에는 리상을 높이 세우고 그 리상을 실현하기 위해 만난을 무릅쓰고 완강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생신한 사상과 건실한 육체를 가진 청춘들이 피와 땀을 바쳐 가꾸고 이룩해놓은 모든 열매들은 조국의 귀중한 재부로 되며 그 재부를 이루어놓은 주인공들에 대하여 인민들은 영원히 잊지 않는것이다.》

《같은 피줄을 가지고 태여났다고 해서 선렬들의 위업이 후대들에 의해서 저절로 이어지는것은 아니다. 선렬들의 투쟁업적을 잘 알고 그것을 진심으로 귀중히 여길줄 아는 후대들만이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세대들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믿음직하게 이어갈수 있다.》

《아이들과의 친교는 사실 나의 생활에서 하나의 큰 락이였다. 아이들의 웃음은 우

리의 마음속에서 고통과 고뇌를 씻어주는 하나의 강력한 세척제라고 말할수 있다. 아이들과 함께 동심속에 잠겨보라. 그러면 그대는 생에 대한 강한 충동을 느끼게 될것이다. 그리고 그 어린것들로 하여 인류의 생활이 더 아름답고 다채로와진다는것과 그들의 눈망울에 차넘치는 리상을 꽃피워주고 지켜주는것이 성스러운 사명임을 가슴이 부풀도록 깨닫게 될것이다.》

《지금도 우리 혁명은 사로청과 함께 소년단을 로동당의 믿음직한 저수지로 보고있다. 우리가 온 나라의 보화를 다 모아 아이들의 궁전을 건설하고 후대교육을 위해 돈을 아끼지 않는 리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기에 나는 오늘도 일군들에게 후대들을 사랑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아이들을 나라의 <왕>이라고 거듭 강조한다. 미래를 사랑하지 않는 혁명, 미래를 가꾸지도 돌보지도 않는 혁명은 전망성이 없는 혁명이다. 그런 혁명이 그 어떤 금빛찬연한 리상을 달성하리라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짓이다.》

《나는 언제나 청년들을 혁명의 전위로 보았다. 청년들은 혁명투쟁과 사회적운동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부문을 담당한 선봉대이고 주력부대이며 미래의 운명까지도 걸머진 골간부대이다.》

《울음은 자기를 사랑하거나 사랑해줄수 있는 사람들에게 어린이들이 보내는 최대의 하소연이다. 사람들이 그 울음앞에서 가슴을 조이며 귀를 기울이는것은 후대들을 아끼고 돌보아주는것이 인간의 본성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본성으로 되고있기때문이다.》

《후대들은 계급의 꽃이고 민족의 꽃이며 인류의 꽃이다. 이 꽃을 잘 가꾸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신성한 임무이다. 후대들을 어떻게 키우는가에 따라 혁명의 장래가 결정된다. 혁명은 한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여러대를 두고 완성되게 된다. 오늘은 우리가 혁명을 담당한 주인으로 되고있지만 래일은 저 애들이 자라서 혁명을 떠메고나가는 주력군으로 될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선혁명에 끝까지 충실하기 위해

서는 혁명의 피줄기를 이어갈 후비대를 튼튼히 키워야 한다.》

《후대들에 대한 사랑은 인간이 지니고있는 사랑가운데서도 가장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이며 인류에게 바쳐지는 송가가운데서도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운 송가이다.》

《력사란 먹으로 지울수도 없고 불로 태울수도 없으며 검으로 찢을수도 없는것이다. 그 누가 뭐라고 하든지간에 우리의 력사는 력사대로 남아있을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자식들이 훌륭한 부모를 모시고있으면 그 영향밑에서 쓸모있는 인재가 된다고 합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부모들도 똑똑한 자식들을 두게 되면 계몽되고 각성됩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하는 일에 보조를 맞추게 됩니다. 이런 리유로 하여 나는 가정을 혁명화하는데서 젊은 세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것을 늘 강조하군 합니다.》

《사람이 혁명을 하자면 부모들의 영향도 중요하지만 자체의 주동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꿈에라도 조상덕을 바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일을 많이 하고 힘을 크게 길러야 조국이 부강해지고 인민이 높은 존엄과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존엄이란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것이 아닙니다. 당이 위대하고 수령이 위대하고 나라가 부강해야 존엄이라는것도 생기고 자부심도 높아지는 법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주력이 되여 당과 수령을 잘 받들고 일을 많이 해서 부강한 조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김정일**동무를 백두산의 아들이라고 하는것은 항일혁명의 산아라는 뜻이며 민족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항일혁명투사들의 품에서 인생의 첫걸음을 떼고 그 품에서 우리 혁명의 향도성으로 솟아오른 조선의 아들입니다.》

《수령의 위업을 계승완성해나가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후계자의 령도를 충실히 받들어

갈수 있는 핵심의 육성, 후비대의 육성입니다. 핵심을 잘 꾸리지 않거나 후비대를 잘 육성하지 않으면 후계자의 령도체계도 옳바로 세울수 없고 후계자의 로선과 방침도 관철해갈수 없습니다.》

《**김정일**동무를 민족의 령도자로 키운것은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의 투사들이 그를 향도성으로 내세워주었으며 백두산의 정기가 그의 기개로 되였습니다.》

삶의 좌우명

냰곳: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
발행: 주체107(2018)년 10월

ㄱ-188350086

전자우편(E-mail):flph@star-co.net.kp
http://www.korean-books.com.kp